

유적지, 큰 지혜의 교과서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지레 말라 죽었을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한 일이고, 문화재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것을 관광삼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올 7월 <한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 12권째로 ‘서울편’을 펴낸 김인덕(74·부산 중구 대청동)씨. 이로써 전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책을 12권 전집, 4094페이지의 분량으로 마무리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를 정리한 12권의 전집에는 전국 163개 시·군·구의 향토사가 집대성돼 있다. 김씨의 전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에는 제주 부산 대구 전북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서울 등 전국의 문화유적과 명승지 총 3088건과 직접 찍은 사진 2500여 장이 수록돼 있다.

김씨의 문화유적 답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삶과 밀착돼 있다. 6년제 중학교 시절부터 풀리기 시작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 역사학의 사상과 정신,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에 닿았다. 한국전쟁을 겪고 8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5급 임용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화유적에 대한 사랑은 점점 열광적이었다.

지방에 가면 군지, 읍지 등을 모으고 지방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는 곳마다 메모지와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기록과 사진자료 남기기에 빈틈이 없었다. 집 곳곳에는 8백여권에 이르는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직접 찍은 사진 수만장이 쌓여갔다.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던 그의 답사는 1984년 공직을 퇴직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됐다.

“처음엔 가족의 반대가 심했어요. 답사를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고 퇴직후에는 한푼도 벌지 않고 쓰지만 했으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었죠. 그래도 우리 전통의 우수성이 그대로 있던 문화유적을 나만 알고 있기에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멈출 수 없게 돼 버린 후였죠.”

급기야 그의 부인 최재선(70)씨가 음식을 싸 들고 답사길에 따라나서기에 이르렀다.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 막는 거라도 할 쟁쟁주위 위해서였다. 11권에 수록된 강원도 답사때에는 한번 집을 나서면 1주일엔 예사였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직접 운전해 가며 답사지를 찾아 달렸다. 절을 만나면 절에서 머물고, 여의치 않으면 여관에서 묵었다. 미리 지도를 작성해갔지만 길을 헤매면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전국을 누비는 동안 자동차는 4대나 폐차 시켰다.



‘전국문화유적 명승지전집’ 낸

김인덕



그동안 쓴 수십만장의 답사원고를 펼쳐 보이며 김인덕씨.

“힘든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가 저물어요. 그리고 답사 때마다 우리 국토 구석 구석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나 부도에 새겨진 구름이나 용 조각, 연꽃의 지극한 아름다움앞에 서면 났을 잃게 됩니다. 그 즐거움이 자꾸 나를 부릅니다. 한참동안 시공을 잊어버리고 앞서간 조상들의 마음과 만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국토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귀중함에 눈을 뜰수록 안타까움도 컸다. 일제시대 도굴로 일본으로 반출돼 영영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 버린 문화재는 곧 우리의 잃어버린 정신이라는 자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일반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채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문화유적도 그의 책 출간을 재촉하는 요인이 됐다.

“우리 전통의 참다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나만 알아서는 안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책 쓰기에 매달렸다.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원고를 작성했다. 정신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

간 원고를 쓰느라, 그동안 다녀왔던 답사지가 눈앞에 있는 듯 펼쳐졌다고 한다.

옆에 있던 부인이 말을 거든다.

“그때 밥이고 낮이고 머리맡에 상을 펴놓고 앉아 있더니 허리가 탈이 나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일년이 넘게 거동도 못하고 누워지내다 조금씩 나아지니까 곧바로 답사를 시작해 올 5월까지 또 답사를 해서 마지막 서울편 책을 냈지요. 저 연세에 일주일에 몇 번 서울을 오가는 걸 보면 적장수라도 많았지요.”

1994년 시작해, 꼬박 4년만에 1·2권 부산 경남편이 탄생했다. 한편을 내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만도 1천만원이 넘었지만 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역시 돈버는 일은 아니었다. 전국의 대학, 역사 연구소, 사찰 등에 책을 무료로 보시하기 시작했다. ‘굴절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근본을 우리의 전통문화의 뿌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믿음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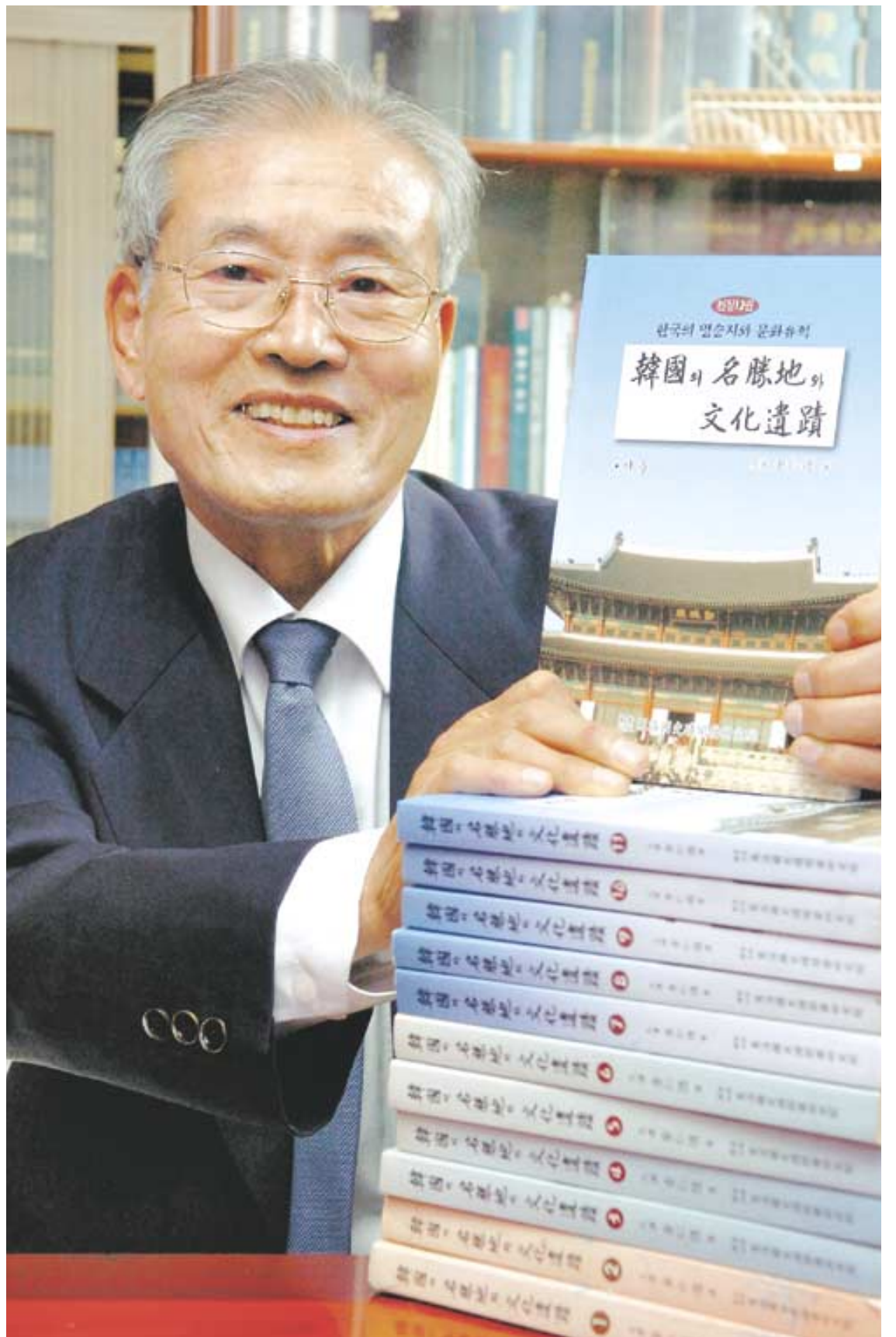
매권마다 500~1100권을 펴낸 후, 지금까지 꾸준히 보시해 오고 있으며 소망이던 서점을 통한 판매도 하고 있다.

“책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전집을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옵니다만, 책이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전집을 찍어낼 능력이 없어요. 규모있는 출판사가 맡아 책을 내준다면 우리 전통의 가치와 우수성이 두둑 두둑 전해질 텐데...”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체국으로 향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으로 보내지는 책을 들고 우체국을 드나들 김씨는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으로 뽐내며 선물을 받았을 정도다.

남한의 문화유적을 총 집대성한 12권을 앞에 놓고, 김인덕씨의 마음은 이제 또 다시 북한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북한 관광이 개방되는 대로 하나 둘 자료를 모아 북한의 유적이나 명승지도 8권 정도로 펴내, 20권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적 자료집을 총 정리해보겠다는 원을 세워놓았다.

단 한반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유적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김씨의 인생을 살아온 김인덕씨. 보여지는 것들을 좇아 전국을 떠돌았지만 김씨가 가 닿은 곳은 결국 ‘마음’의 세계였다. 전국에 흩어진 문화유적은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활짝 열려진 통로라는 것이다.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 하고픈 말은 그 문화재속에 담긴 조상들의 ‘마음’이다.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혼이 여기 있고, 그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갈피를 넘길 때마다 쟁쟁 것들을 울린다. 부산/글=권미희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김인덕씨는 20년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눈을 뜬 뒤 현재까지 12권 분량의 ‘한국의 명승지와 문화유적’ 시리즈를 펴냈다.

40여년 전국 답사 ‘길 위의 인생’... 북한 유적정리가 ‘꿈’
3000여 문화유적·직접 찍은 사진 2500여장 12권에 수록



불자, 김홍국이 고백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받을 것은 생각도 말라.”
무상보시. 이 말 한 마디에 저는 늘 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돈이 없으면 저의 노래라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책 한권에 제 삶의 기록을 모두 담았습니다.

웃고 싶습니까?
자~ 한바탕 웃어보십시오!
그러나,
한바탕 웃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아! 들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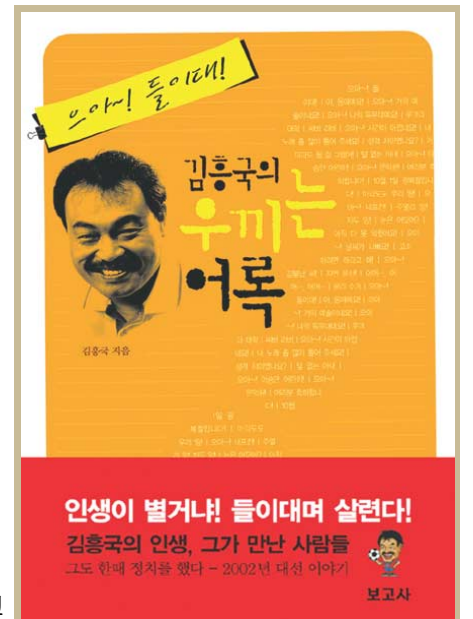
<김홍국의 우끼는 어록> 출판기념사인회

- ◆11월 19일 : 교보문고(본점) 늦은 1시 30분부터
- ◆11월 26일 : 영풍문고(강남점) 늦은 1시 30분부터
- ◆11월 28일 : 영풍문고(분당점) 늦은 4시부터
- ◆12월 09일 : 영풍문고(인산점) 12시부터(매그루먼 박미선 씨와 함께 합니다)

<김홍국의 우끼는 어록> 출판기념회

- ◆일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늦은 6시
- ◆장소 : 63빌딩 별관2층 국제회의장

316쪽 / 값 9,800원



인생이 별거냐! 들이대며 살린다!

김홍국의 인생, 그가 만난 사람들

그도 한때 장차를 했다 - 2002년 대전 아사기

보고사